## 나주 공동혁신도시 교육·문화시설 부족

# 이전기관 직원들 "가족들은 안간다"

### 10명 중 2명만 '가족과 이주' 답변

나주에 들어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 등 17개 공공기관의 종사자 10명 중 2명 정도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지난 해 10월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20%만이 가족동반 이주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18%만이 가족 동반 이주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독이주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57%), 배우자 직장 문제(29%), 혁신도시 위치 및 문화편의시설(21%) 등을 꼽았다.

효과적인 이주 유인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구입보조금(61%)과 특성화고교 등 교육정책(56%), 가족 취업수당 및 재취업지원(50%) 등으로 답했다.

이주시 희망하는 주택 규모는 30평~40평(50%)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43%가 고층아파트(저층 15%, 단독주택 13%)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중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복합문화시설(49%)과 종합병원(49%)을 꼽았으며, 상업시설과 관련해서는 영화관, 백화점 등 복합쇼핑센터(48%) 유치를 원했다.

이와 함께 가족 동반 이주 의사는 전북이 17%, 제주 18% 등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호남·제주권 혁신도시로의 이전 의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 동반 이주 의향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취약한 도시·문화 인프라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북은 28%, 대구와 울산이 각각 24%를 기록,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혁신도시가 다소 안정화되면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0% 내외였으나 광주·전남은 49%, 제주는 47.7%로 충북(54.1%) 등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정보문화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 소속 3만2천여명의 직원이 이주하게 되며, 정부는 직원이 동반하는 가족(4인 가족 기준)을 합하면 10만 여명 이상이 살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비스 인구 등의 유입을 감안해 많게는 90만명 이상이 혁신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태민안 기원 어가행렬**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를 올리기 위한 어가행렬(御駕行列)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를 통과하고 있다. 사직대제는 조선시대 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직접 제향을 올리며 국가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 제례의식으로,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일컫는다. /연합뉴스

# 원유 도입가 70달러 돌파 사상 최고

### 배럴당 71.13달러 6개월째 상승 … 산업계 비상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도입 단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11면〉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원유도입 단가는 배럴당 71.13달러로, 전월보다 1.64달러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원유도입 단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원유도입 단가의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도입 단가는 국제유가에 운송요금, 보험료 등을 더해 산정되는 가격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원유 가격이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의 공장도 및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준다.

원유도입 단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올 2월까지 내림세를 보였지만 3월 들어 59.61달러로 오른 뒤 4월 63.49달러, 5월 65.71달러, 6월 68.12달러, 7월 69.49달러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원유도입 단가 역시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빛나만평

- 김종두

태풍이 따블로 왔으니…

# 서남권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 목포시 등 3개 단체장 등 상경 입법 촉진 활동

정종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등 전남 서남권 3개 단체장과 지역 관련기관 대표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남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서울 상주 등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3개 시·군은 "목포·무안·신안 시장·군수가 이번주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원들과 건설교통부 장관, 여·야 대표들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남권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입법 촉진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남해안포럼, 서남권발전추진위원회 등 관련단체들과도 공조해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건교위의 토론회(17일)와 공청회(19일), 건교위 법안 소위 심의 과정 방청 등 국회 일정에 맞춰 전방위 입법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회기에서 꼭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문화수도 종합계획 확정 연기 촉구

### 광주지역 25개시민·문화단체

광주전남문화연대와 광주전남개혁연대 등 지역의 25개 시민·문화 단체들로 구성된 '문화도시협의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17일로 예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법정종합계획 확정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도시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문광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종합계획안 최종 심의·확정 전에 광주에서 최종설명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서울, 광주공청회 이후 어떤 내용이 수렴돼 최종적인 종합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며, 두 세 차례의 조성위원회 논의만을 통해 한 지역의 미래를 변화시킬 20년 법정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문광부가 절차의 정당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지역 시민사회의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심 해소와 소통구조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최종설명회를 가진 뒤, 종합계획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상품·서비스 등 '줄다리기' 예고

### 한-EU, 17일부터 FTA협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당기기 위해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절충에 돌입한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17일부터 21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쉐라톤브뤼셀 호텔에서 FTA 제3차 협상을 갖고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환경·노동.총칙) 등 4개 분과에서 줄달리기 협상을 펼친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부터 주고 받기가 본격화되고 탐색전도 치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2차 협상에서 EU 측이 양허(개방)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상품 양허안의 수정안과 설립(투자)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양허 초안을 보냈고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대상을 요구하는 리퀘스트(Request)와 정부조달 분야의 수정 리퀘스트를 EU 측과 교환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카드와 상대에게 요구할 카드를 어느 정도 제시한 만큼 3차 협상부터 양보할 수 있는 부문과 반드시 지키거나 얻어야 부분을 따지는 이해득실 계산이 치열해진다. /연합뉴스

### 박지사 南美 7개국 순방차 출국

박준영 전남지사가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문화사절단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미니카연방과 아이티 등 남미 카리브해 연안 7개국 순회교섭 활동에 나선다.

이번 문화사절단에는 박 지사를 비롯해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김철신 지방유치위 집행위원장, 유치위원, 도립국악단 등 28명이 참여한다. 박 지사는 이번 방문기간 동안 각 국의 대통령과 수상을 방문,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여수박람회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알려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 총회장이신 韓完錫 원로목사님께서 2007년 9월 14일 오전 11시 2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다 음

■ 殯 所 : 광주제일교회 배유지홀
■ 葬禮禮拜日時 :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 葬禮禮拜場所 : 광주제일교회 예배당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8) (062)382-1004
■ 葬 地 : 광주제일교회 공원묘지 (전남 화순군 동면)

사모 소병림
장남 한인수
장녀 명신
차녀 경신
삼녀 혜신
차남 헌수
삼남 강수

광주제일교회 장례위원회

## 강사(모집)등록 안내

본 원은 건설교통부지정(제3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종합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통하여 건설기술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외래강사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외래강사 등록 분야**

1. 소양분야
- 건설관련 소양/법령/제도/기타 건설기술자로서의 소명의식 고취할 과목
- 대인관계, 자기계발,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 건강관리 등 교양
2. 관리분야
- 건설사업관리(CM)/클레임/품질/EVMS/PMIS/Project Financing/Partnering
- 윤리경영/입찰/계약/세무회계/시공성 및 생산성 향상
3. 전공분야
- 토목, 건축, 기계, 국토,안전 환경 등 분야별 전문실무/신기술/신공법/국내외 시공사례 등

**강 의 시 간**

- 전공분야 : 3~4시간 - 소양분야 : 2~3시간

**외래강사 등록 자격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 10년이상의 기술사
- 관련분야 실무경력 15년이상의 기술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 관련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연구원
- 소양분야 강의경력 5년이상의 석사학위 이상

※등록방법 : www.hicte.or.kr에서 강사등록카드 작성
☎ 062-513-0116(이명곤)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멀티미디어 사운드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대 상**
- 영상, 음향, 게임제작 관련 실무자
- 디지털 음향 엔지니어 및 미디어 제작자
- 디지털미디어 관련학과 학생 및 교수

**기 간**
2007.10.1 ~ 2007.10.24 (13:00~17:00)

**장 소**
광주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남구 사동 舊 KBS)

**접 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mhmir@hanmail.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접수기간 : 2007. 9. 27(목) 15:00

**모집과정**
• 사운드 엔지니어 기초과정
- MIDI 시퀀싱 작·편곡 (NUENDO)
- VSTI 가상 악기 및 Plug-In 활용
- DAW를 이용한 레코딩 실습
• 사운드 엔지니어 중·고급 과정
- 전문 음향 이론 및 아웃보드 H/W 실습
- Protools를 활용한 MIXING 테크닉
- 서라운드 기본과 활용
- 포스트 사운드 디자인
• 멀티미디어 사운드 제작 과정
- 게임개발을 위한 기초이론 및 사운드의 이해
- 게임음악 제작 실습 (기획, 작곡편곡, 녹음, 믹싱)

※ 각 과정별 수강 신청 가능

**초청강연**
■ 한국 음악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위기 극복 방안
- 강사 : 박준흠(가슴 네트워크 대표) 2007.10. 5 (13 : 00~17 : 00)
■ Visual & Channel Music 을 중심으로한 New Media 시연
- 강사 : 박진용(경기대학교 겸임교수) 2007.10.12 (13 : 00~17 : 00)

GITCT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Gwangju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http://www.gitct.or.kr/
TE:062)350-2411, FAX:062)350-2445